# "당권, 호남표에 달렸다" 뜨거운 텃밭 구애

■ 새정치 전대 후보들 18~20일 '호남 대회전' 총력

"당권·대권 분리·계파 청산" 첫 TV토론부터 난타전 박지원 '호남 사수' 문재인·이인영 '쟁탈 전략' 맞불

가 당권까지 도전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

이라며 "문 후보는 대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당권-대권 분

이에 맞서 문 후보는 "박 대표의 경력은

당대 최고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주신 리

더십과 스타일을 보면 당을 장악해서 전횡

할 것 같다"면서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

다고 생각하는 당원이 많다"고 박 후보에

이 후보는 "'친노-비노'간의 갈등을 넘

기 위해서는 세대교체만이 정답"이라며

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리를 거듭 주장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호남 지지를 얻어야 당 대표 자격있 다."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의 분수 령이 될 이른바 '호남 대회전'을 앞두고있 는 가운데 당권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의 호남 구애가 뜨겁다.

텃밭인 호남을 잡아야 판세를 주도한다 는 점에서 각 후보들은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올인'하고 형국이다.

◇광주·전남 첫 TV토론회서 난타전=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등 당 대표 후보 3 명은 15일 열린 광주 MBC 첫 TV토론회 에서 당권·대권 분리론, 계파주의, 지역주 의 등 서로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면서 난 타전을 벌였다.

초반 TV토론에서 기선을 잡아야 전대 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각 후보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당을 살리는 일에 정치생명 을 걸겠다"면서 "당 대표가 되려면 광주· 전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광주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당의 적통의 되기 어렵 다"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것보 다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길이 더 시급하다"면서 "당은 오직 혁신만 이 살 길인데, 정답은 세대교체"라며 세대 교체론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집권을 위해서는 경륜과 경 험을 가지고 신속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호남의 정신을 지키고 당 의 통합을 이뤄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 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대권 후보

문 후보를 공격했고, "박 후보가 당 대표 가 되면 지역적으로 고립된다는 걱정이 많 다"면서 박 후보를 견제했다.

◇주말·주초 호남 대회전 주목=이번 전당대회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 합동연설회가 오는 18일(광주·전남)과 20 일(전북) 펼쳐진다. 텃밭을 잡아야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대표들과 최 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합동연설회에 사활 을 걸고 있다. 휴일인 18일 오후 1시30분 에는 화순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전남도 당 대의원 대회가, 오후 4시에는 김대중컨 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대의원 대회가 예

이어 19일 전북TV토론회에 이어 20일 오후 2시에는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전대 중반에 이르

는 이번 주말과 내주 초 열리는 지역 대의 원 대회의 호남 합동연설회가 이번 2.8 전 당대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호남공 략을 위한 전략을 짜는데 올인하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후 보가 남은 기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 산때문에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호남 지역 좌장격인 박지원 후보의 '사수전략' 과 문재인, 이인영 후보의 '쟁탈 전략'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 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안간힘 을 쓰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의 원·권리당원이 절반 가까이 거주하고 있 는데다 수도권에서 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도 호남 출신이 많기 때문에 '호남 민심'의 향방이 이번 전당대회의 승 패를 가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 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인영(왼쪽부터), 박지원, 문재인 당대표 후보들이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 MBC공개홀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野 "개헌 서둘러야" vs 與 "지금은 안돼"

## 양당 지도부 '2+2 회동' 개헌특위 놓고 날선 공방 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개특위는 2월중 구성 합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 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2+2' 회동 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 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 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개

삼성, 현대, LG 직원

은행원, 연구원

사업가, 자영업

세무사, 연구원

국영기업체 직원

교사, 교수

대(중,소)기업 직원

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 사정 을 감안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당 지도부는 초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주로 개헌 추진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인 것으로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소 지친 표정으로 "'힘든 얘기'를 많이 했다"

며 "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굉장히 강력 하게 한 시간 이상 요구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 대해 "(개헌 논의 불가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서 (여당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 시간 넘게 그 문제로 했는데 '(필요성 에) 공감한다' 이게 진전"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입씨름은 이날 회동 전부터 충분히 감지됐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 지만, 경제살리기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국민, 미래 세대에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며 당장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헌의 적기로 판단, 개헌 논 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의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 드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2'회동에서는 선거구 획 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 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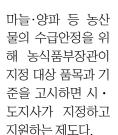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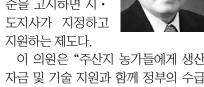
### 정가라운지

### 이윤석, '농산물 주산지 지원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지자 체가 지정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해 정 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산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주산지 지원에 사용토록 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무·배추·





조절에 동참하도록 하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승남 "농식품부 업무보고 FTA 실질대책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지난 13일 실시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와 관련, 지난해 한·중 등 5개국과 FTA 체결, 쌀 관세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 업이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 직접적 인 피해 당사자인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인 피해보전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유입 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실 정에서, 1차형 산업구조의 6차형 산업구 조로 전환으로 농산물가공센터(30개), 6 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 등을 만든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며 "오히려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 는 우수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

김 의원은 또 "ICT기반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팜 조성 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비닐하우스 개폐시설, 온도센서,



CCTV등을 조작하는 형태로 대기업과 대규모 농장에 맞는 정책일 뿐이며 중소 영세농을 대농위주로 구조개편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영세농가를 대상 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생산성 증대효 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없어, 결국 대농위주의 사업개편으로 진 행하는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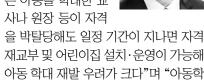
#### 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 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 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 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 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상해 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 격 재취득 기회도 박 탈하는 규정도 포함

김 의원은 "현행법 은 아동을 학대한 교 사나 원장 등이 자격



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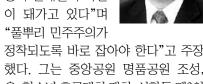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성현 전 민주시당 사무처장 광주 서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15일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이날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역동성을 잃은 지역위원회를 살리겠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고 소통하 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처장은 "광주 서구을이 전

직장관, 국회의원, 검찰관료 등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치 철새들의 낙원 이 돼가고 있다"며



했다. 그는 중앙공원 명품공원 조성, 유·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서창동 제2의 민속촌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출산 여성' 희망

VIP 희망 여성 W

공무원, 교사

자영업, 가사

간호사, 회사원

'무자녀 남성' 희망

학원(음악)원장, 강사

31~58세

29~53세 27~63세

32-58세

29~48세

35~64M

28~48세

지사 (63) 275-7766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스튜어디스, 영양사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9~49세

29~394

27~42H

25~384

26~47세

27~42세

26~42세

#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 학 부

###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2015. 1. 26(월) ~2. 2(월) ② 전 형 일: 2015. 2. 4(수) 오전 10:00

###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 인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2	
예능	음 악 학 과	6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 신학대학원

###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2015. 1. 26(월) ~2. 2(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 형 일: 2015. 2. 4(수) 오전 10:00

###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 (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악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